

문제: 포퓰리즘은 무엇이고, 왜 나타나며, 어디로 나아가는가?

--

1. 포퓰리즘의 개념
2. 포퓰리즘 출현의 객관적 조건
3. 포퓰리즘의 두 경로
4. 세계의 포퓰리즘들
5. 쟁점

--

1. 포퓰리즘의 개념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대중적인 인기,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하여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을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포퓰리즘은 1870년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였으며,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파퓰리스트당(Populist Party)이 내세웠던 정치 수단이었다. (...)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 중장기적인 고려없이 당장의 국면만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정책을 내세운다.¹⁾

1-1. 포퓰리즘의 번역 문제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주의” 또는 “대중인기영합주의”로 번역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사전적(辭典的) 의미에서” 오역 또는 왜곡번역이다. (...) ‘대중(적) 인기’라는 한국말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영어 단어로는 popularity가 있는데 만약 대중적 인기를 최우선으로 놓고 벌어지는 각종 행태를 비난하고 싶다면 보다 정확하게 popularism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써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영어에는 “대중의 인기만 노리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어차피 popularist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말에도 굳이 포퓰리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대중영합주의자’라는 아주 적합한 단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populism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라고 야릇하게 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 필자는 한국 언론들이 populism을 부자연스러운 외래어(번역어) 병기법까지 동원하여 의미를 대중영합주의로 고착시키는 의도가 단순한 어학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참여를 조장하는 모든 시도, 시민단체들에 의한 모든 정치적 연대의 시도”를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데 있다고 본다. (...) 외래어 ‘포퓰리즘’은 그것이 사용될 때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로 표기됨으로써 “그 정당한 번역어인 people 또는 Volk 또는 narod와의 정당한 연상결합을 차단시키고 people 또는 Volk 또는 narod에 관한 담론을 바로 ‘포퓰리즘’으로 매도되었다. 다시 말해 ‘포퓰리즘’이라는 한국어 기표는 populism이라는 영어 기표를 ‘민주주의’나 ‘인민주의’라는 기의와 차단시켰다.” 따라서 “(한국에서) ‘포퓰리즘’은 populism을 억압한다.”

(...)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필자) 포퓰리즘 역시 사회 및 역사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엄정하게 포착되는 개념적 이상형이 있으며, 정치철학적 구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포퓰리즘은 현대 민주주의와 동반하면서 19세기 이래 현대화와 민주화 그리고 사회혁명의 고비마다 자기주장을 제기한 주요한 사상적 실재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질적인 정치현상에 두루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이유로 그런 이질적인 정치현상들을 관통하는 개념구도에 대한 포착을 방기한 채 과학적 분석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정치인의 인기영합주

1) [네이버 지식백과] 포퓰리즘 [populism] (두산백과)

의' 같은 것을 포퓰리즘의 규정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실상 학문적 작업의 포기이다.²⁾

1-2.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관계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지배형태로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개념이 성립된 맥락과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운동현상으로서 포퓰리즘의 발상과 개념이 성립된 맥락은 그 문제층위가 다르다. 즉, 민주주의는 한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의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그 국가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포퓰리즘은 한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의 '권력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그 국가의 권력이 누구의 삶을 이익 되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형성되거나 해체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주권원칙, 다시 말해, 인민주권 또는 국민주권의 준수 여부이다. 그에 반해 포퓰리즘의 발생과 소멸을 조건지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국가의 '지배권력'과 그 국가 다수 구성원이 체험하는 사회적 '이익-손해-편제'의 관련성 양상이다.³⁾

1-3. 파시즘과 포퓰리즘의 차이

똑같이 대중동원에 주력하는 파시즘은 포퓰리즘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 것인가? 파시즘과 포퓰리즘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가 질적으로 판이하다는 데서 찾아진다. 포퓰리즘은 그 비제도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제도정치권의 수단을 통해 대중 또는 관련된 민중의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반면에 파시즘은 대중이나 민중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욕구를 권력의지 그 자체로 바꿔 '권력체제 장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에 비할 수 없는 파괴력과 포악성으로 귀결한다.

2. 포퓰리즘 출현의 객관적 조건⁴⁾

- 1) '민주주의'가 도입되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기대되는 상황에서,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권력 운영원칙으로서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제도적으로나 그 제도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확고하게 인정된 분위기가 일반화되어 있다)
- 2) 그것이 실현되거나 실현될 국가와 사회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생활의 수준과 질'이 완전히 '출구 없는 나락(exitless pit)'에 빠져 있으며,
- 3) 그런 나락상태에 대한 '주관적 비극체험과 그 동질성'이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고,
- 4) 그 나락상태의 객관적 원인과 그것을 개선하지 않는 책임이 그 사회 또는 국가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특정 지배세력'에 있다고 사회적으로 지목되면서,
- 5) 그런 지배세력의 준동이 '현존 민주주의의 실패'와 연관될 수 있을 경우,

바로 그런 경우, 그 지배세력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광범하고도 심층적으로,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생활상의 문제점들을 쟁점으로 하여 '피해자 동맹(losers' union)'이 형성된다.

(...) 포퓰리즘은 그 어떤 형태든 그 자체 결코 사회적이거나 문화적 운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 운동이며, 그것도 즉각적인 생활상의 개선 효과를 목표로 하는 '목적의식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활상의 (절박한) 요구'와 그것을 중심으로 결집된 '동질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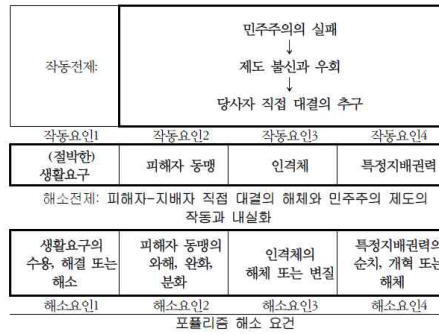
2) (2006), 한국 포퓰리즘 담론의 철학적 검토: 현실능력 있는 포퓰리즘의 작동편제와 작동문법 탐색

3) 홍윤기.

4) 홍윤기.

인 피해자 동맹'을 가장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국가정치편제에 투입할 수 있는 '정치적 매체'(political medium)가 급박하게 요구된다. 자기 생활의 요구를 가장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고 압박력을 창출하는 데는 그 어떤 '제도적 절차'보다는 그것을 신속하게 습득하여 관련 대중의 의사를 자신과 일체화시켜 그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관철시켜 나가는 '인격체'가 민주주의적 제도영역을 선점하여 피해자동맹을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 지배권력'과 대치해 주는 것이 가장 적격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포퓰리즘이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작동편제가 완성된다.

(그림 1) 포퓰리즘 작동편제



2-1. 유럽의 현재적 조건

잉글하트와 노리스 교수는 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소개한다. 첫번째는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라는 이론이다. 80년대부터 시작돼 90년대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제 무역을 확대하고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지난 30년간의 진행과정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 시기 선진국 중산층의 수입은 정체된 반면에 개발도상국 중산층의 부는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확대된 경제적 불평등은 낮은 임금을 받는 비숙련 노동자들, 장기 실업자, 점점 줄어드는 복지 연금에 의존하는 주부, 편 부모 가족, 이민자들이 집중된 도심에서 사는 가난한 백인들이 기성 체제에 반대하는 주장이나 이민배척주의, 그리고 외국인 혐오를 부르는 유언비어를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이들 학자들은 설명했다.

두번째는 문화적인 반발이라는 이론이다. 잉글하트 교수가 1976년 발표한 저서의 제목이기도 한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라는 개념에서 이 설명은 출발한다. '조용한 혁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가 번영을 누리면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던 문화가 세계시민주의(코스모폴리타니즘)이나 다문화주의와 같은 비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로 점차 변동해간 추세를 일컫는 개념이다. (...) 그러나 이런 문화변동은 태생적으로 '반혁명'적인 복고성향을 촉발할 수 밖에 없다. 기성세대, 백인 특히 교육을 받지 못한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쇠퇴해 간다고 느끼며 진보적 가치를 거부한다. 전통적인 가족 규범이 다른 가치로 대체되는데 대해 불평하면서 포퓰리스트들의 호소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지지자들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한 때 문화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만큼 자신들의 특권이 침해된 데 대해 분노를 갖고 있다. 잉글하트와 노리스 교수는 실제로는 경제적 불평등과 문화적 반발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작동해 오늘날의 포퓰리즘 득세를 부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연구 결과에서 결론 내렸다.⁵⁾

5) 노컷뉴스, 세계를 뒤덮는 포퓰리즘과 '위험한' 신고립주의, 2016년 11월 9일.

2-2. 한국의 조건은?: 천관울 기자의 분석

유능한 데마고그란 자체로 포퓰리즘의 중요한 재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환경이 받쳐 줘야 한다. 불평등과 경제위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금융위기는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대단히 높이므로, 데마고그가 휘저을 무대를 만들어준다. 기존 정치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도 필수 요소다. 여기까지는 2016년 한국에 넉넉히든 자박하게든 존재한다. 좋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유능한 데마고그에게 최상의 재료는 따로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낙인찍을 '내부의 적'이 존재해야 한다. 이 '내부의 적'은 직관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고, 중요와 공포를 동시에 부를 만큼 양적으로 많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위협적이어야 한다.

(...) 한국은 내부의 적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 결혼이민자/노동이민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 정치적 균열의 축이 될 정도는 아니다. 지역이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 적도 있지만, 충분히 직관적이지 않고 정서적으로 정확히 분리되지 않아서 포퓰리즘의 재료로 완벽하게 작동하기는 어렵다. 여성? 여성혐오 문제가 심각한 것과 별개로, 난센스다. 오해 없으시기를. 인종, 지역, 심지어 젠더를 동원하는 정치는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로 포퓰리즘이 요구하는 내부의 적을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다들 하자가 있다. 그리하여서 한국의 잠재적 데마고그들은 왼쪽에서건 오른쪽에서건 내부의 적을 발명해야 했다. 그게 중복이었고, 그게 친일파였다. 둘 다 실제 크기를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만약의 근원' 자리에 앉힌다.

한국 정치에서 중복과 친일파는 어떤 의미로는 '상상된 히스패닉' '상상된 무슬림'이다. 한국의 데마고그들은 불행하다. 중복이든 친일파든, 보통의 유권자가 보기에 히스패닉이나 무슬림 만큼 직관적이지도 위협적이지도 않다. 포퓰리즘의 결정적 재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한국의 데마고그들은 일종의 가상전선을 무리하게 그어내야 했다.⁶⁾

3. 포퓰리즘의 두 경로

3-1. 탈이념-진보지향 포퓰리즘: 시리자, 포데모스

포데모스는 자신들이 중도좌파인 사회노동당(PSOE)과도, 급진적인 통일좌파(Izquierda Unida)와도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진보 정치를 다른 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 예전에는, 사회학적 분석이 노동계급이라는 분명한 지시대상을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는 변형됐고, 또 다른 층위를 끄집어내서 이것에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것은 옳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스페인의 진보적 유권자들은 전통적 좌파 유권자들이 아닙니다. 포데모스는 새롭게 동원할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더 넓은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 오늘날에는 거대 자본주의 회사들이나 거대 공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만 짓밟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affect) 생명정치적, 포스트포드주의적 자본주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정책, 긴축부과정책, 금융자본의 팽창은 사회관계를 바꾸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귀결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민주주의를 급진화할 수 있는 좌파 포퓰리즘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몇 년 안에, 우리는 적대를 승인해야 할 것이며, 이런 투쟁들이 그에 맞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할 민주적 제도들에 대해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싸움은 전통적인 범주들의 용어 내부에서는 수행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가까운 몇 년 안에, 우파의 포퓰리즘과 좌파의 포퓰리즘 사이의 열린 투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축되어야만 하는 이 인민은 우파들이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마리 르 펜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

6) 천관울 기자의 페이스북.

니다. 즉, 이민자들을 박해하는 배제적 인민 말입니다. 하지만 좌파로부터의 인민의 구축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포함하고 신자유주의적 전지구화의 권력에 맞서는 인민 말입니다.⁷⁾

3-2. 우익/극우 포퓰리즘

이러한 현상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자들이 지칭하는 “근대화 패자”로 지칭되는 집단과 그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남성으로, 비숙련노동에 종사하며, 직업이동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혐오를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가치관, 일명 우익 포퓰리즘(Right-Wing Populism)의 등장과 그 지지기반의 확산을 의미한다. 글로벌화와 탈공업화로 대표되는 장기적인 사회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적 영역의 역할의 저하, 채용, 노동규제 등의 의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역시 공통적인 특징으로 있다. 즉 정보통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세계화가 일상화된 지금 세계는 거꾸로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는 우익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다문화 세계화의 수혜자와 그에 반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노동자계층의 민족 중심적 국가주의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열은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 사실 전통적인 우익의 시각은 주로 자유주의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좌파 포퓰리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복지국가로의 확산에 반대하는 시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우익 포퓰리즘은 국가와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일종의 복지 쇼비니즘(Welfare chauvinism)⁸⁾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퓰리즘적 요소라 하면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성격, 즉 대중의 의지(이익)을 정치적 정당화의 궁극적 근거로 보는 사상으로부터 파생한 이데올로기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정당이나 이익단체가 형성한 기득권 시스템의 파괴를 목적으로 반 기성정당, 반 이익단체, 반 엘리트주의, 리더를 중시하고 국민투표 등을 중시한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이민반대, 법과 질서의 중시, 정체성(Identity)의 중시, 반 글로벌화, 반 EU의 입장 등 국가 및 민족중심주의적인 이익과 법질서의 중시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⁹⁾

4. 세계의 포퓰리즘들



4-1. 포퓰리즘적 현상

4-1-1. 페기다(Pegida)

7) 무페, 히로세 준(2016). 포데모스 혹은 좌파포퓰리즘에 대한 두 개의 시선. 진보평론, (68), 127-138.
 8) 복지혜택은 반드시 특정한 그룹, 특히 한 국가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아닌 원래 그 국가의 민족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정치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이다. (박근영(2016)에서 인용)
 9) 박근영(2016), 우익 포퓰리즘 (Right wing Populism)의 전 세계적 확산, 한국민주주의연구소.
 10) 한겨레, 유럽 양당체제 뒤흔든 포퓰리즘...“기성 정치권 대안 내놔야”, 2016년 12월 15일.

“서양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유럽 애국자” 혹은 “서구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유럽 애국주의자”인 PEGIDA(Patriotische Europä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 운동이다. 페기다(PEGIDA)는 2014년 10월 20일 독일에서 데모를 시작으로 서구권에 걸친 이슬람의 폭력적인 활동을 제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단체를 목표로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2014년 10월 27일 작센 주(Sachsen) 드레스덴 (Dresden) 시내에서 2차례의 시위를 일으키며 500명의 시위자를 모아 일약 독일 국내의 주목을 받았다.¹¹⁾

4-1-2. 브렉시트

4-1-3.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

이탈리아 렌치 총리는 이에 상원의원을 현행 315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하고 대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헌안 국민투표가 큰 득표율 차이로 부결됨에 따라 이탈리아 국민들이 반 세계화를 내세운 오성운동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성운동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유로존 탈퇴와 리라화 복귀, 이탈렉시트(이탈리아의 EU 탈퇴) 등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며 렌치 총리의 개헌안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 국민투표 부결 배경으로는 대량 난민유입과 청년실업 증가 등 고질적 병폐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의 누적된 분노도 직접적인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EU와 터키의 난민송환협정으로 그리스를 통한 유럽행이 막히면서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난민의 최대 유입국으로 전락했고 청년실업률은 40%에 육박하는 등 기존 정치권을 향한 이탈리아 국민들의 반감이 폭발 직전이었다. 상원 축소는 결국 렌치 총리를 비롯한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 강화라는 국민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¹²⁾

4-2. 진보적 포퓰리즘

4-2-1. 포데모스(스페인)

2011년 5월15일 정부의 긴축정책에 고통받던 스페인 시민 800명은 실업과 빈부격차, 부패, 공공서비스 삭감 문제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 광장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시위는 ‘인디그나도스 운동(분노한 사람들)’나 ‘15M(5월15일) 운동’으로 불린다.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언론인이었던 파블로 이글레아시스 콤플루텐세 대학교 교수는 이 15M 운동을 조직적 운동으로 만들었으며 2014년 신생정당 ‘포데모스’를 창당했다. 포데모스는 반유럽 연합(EU), 반긴축, 실업을 제고, 공공복지 확대, 기초소득 보장 등 급진좌파 정책을 주장하며 스페인 경제의 약점을 발판삼아 인기를 얻었다. 스페인어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의 포데모스는 창당 4개월만에 120만표를 얻고 유럽의회 선거에서 5석을 차지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 포데모스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총선에서 21%의 지지율로 350석 중 69석을 차지해 제3당이 됐다. 당원수도 국민당에 이어 2위로 올랐다.¹³⁾

4-2-2. 시리자(그리스)

시리자는 사민주의자부터 트로츠키주의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진보세력들이 뭉친 무지개 정당이다. 이념과 상관없이 유럽 통합에 회의를 보이는 세력도 가담했다. 시리자의 파괴력은 이념에 있지 않다. 시리자의 정당 성격을 나타내는 수식어는 ‘반기성정당’ ‘반긴축’ ‘포퓰리스

11) 박근영(2016).

12) 한국일보, 伊 개헌 좌절...렌치의 승부수 뒤집은 포퓰리즘, 2016년 12월 5일.

13) , "약자 편에 서는 게 익숙"...스페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포데모스 대표, 2016년 12월 21일.

트'다.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 시리자의 힘이다. 정치적으로 기존 정치세력과 질서에 대한 거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처방의 부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들은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해준 트로이카(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가 부과한 긴축정책을 주요 타격 방향으로 설정했다. 긴축 거부는 구제금융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이는 EU의 정책 방향에 도전하는 것이다.¹⁴⁾

4-2-3. 샌더스(미국)

4-2-4. 노동자당(브라질)

4-3. 정체를 알 수 없는 포퓰리즘

4-3-1. 오성운동(이탈리아)

오성운동(五星運動, Movimento 5 Stelle)은 그릴로가 2009년 직접 민주주의와 반부패, 반유럽연합(EU), 리라화 복귀 등을 걸고 만든 포퓰리즘 정당이다. 그릴로는 “정치인은 국민의 봉사자”라며 부패척결, 정치인 월급 삭감, 선거자금 보조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 유토피아’라고도 불리는 오성운동은 ▲물 ▲교통▲개발▲인터넷접근성▲환경 등 5대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그릴로는 기존 정치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오성운동에 당(party) 대신 운동(movement)이라고 이름을 붙였다.¹⁵⁾

4-4. 극우적 포퓰리즘

4-4-1. 국민전선(프랑스)

4-4-2. 독일을 위한 대안(독일)

독일의 우익 포퓰리즘의 핵심 첫 번째 중 하나이며 현재 독일의 대표적인 우익정당인 2013년 결성된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약칭 AfD 정당이다. 이 정당은 메르켈 정권에 의한 그리스 및 유럽연합국으로의 구제조치에 대한 반발한 (anti-euro movement)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 세력이 중심이 되어, 2013년 2월 6일에 베를린에서 설립되었다. 한 마디로 반 메르켈, 반 이민자, 반 미디어, 반 유로, 반 이슬람 정당이다.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목표로, 유로권에서의 이탈과 독일 마르크의 부활을 당면의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왔다. 당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우파색이 강하지만, 국수주의나 이민배척은 내세우지 않았다. 2014년 유럽의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의원을 당선시켰다.¹⁶⁾

4-4-3. 영국독립당(영국)

4-4-4. 자유당(오스트리아)

4-4-5. 두테르테(필리핀)

4-4-6. 트럼프(미국)

5. 쟁점

5-1. 포퓰리즘은 꼭 나쁜가?

5-1-1. 좋을 수도

14) 정의길, 시리자 집권, 다른 질서는 가능할 것인가?, 한겨레21, 2015년 2월 7일.

15) 조선비즈, 이탈리아의 트럼프,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 오성운동 대표, 2016년 12월 13일.

16) 박근영(2016).

돌이켜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정치'와 '경제'를 새롭게 구획하면서 시작됐다. 생산 및 소비 영역으로 얼마간 확장됐던 민주적 결정의 영향권은 다시 축소됐다. 동시에 민주적 결정 과정에서 엘리트와 대중이 맡는 역할도 재구획됐다. 지구화, 금융화로 각 국민국가의 선출직 공직자가 실제 담당하는 권한이 대폭 축소됐고, 그나마 남은 권한도 자본의 초국적 네트워크에 맞춰 재구성돼야 했다. 결과적으로 대중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는 유례없이 줄어들었다. 민주주의의 외양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실은 더 이상 민주주의라 하기 힘든 상태(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돌출하는 정치 이변은 이런 상태에 맞선 봉기다.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에 대한 알리의 펼쳐림, 신자유주의 시대에 압사당한 정치를 대중 자신의 행위로서 부활시키려는 시도다.

언론은 제도정치의 일부가 이런 대중적 흐름과 접촉할 경우에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우파 쪽의 접촉이든 좌파 쪽의 접촉이든 말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포퓰리즘'이란 그저 부활한 '정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 트럼프-샌더스 현상, 영국과 이탈리아의 국민투표 이변, 좌우 신진 세력의 약진 등과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이 표출하는 시대정신은 그리 다르지 않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대중은 포스트 민주주의에 맞서 정치를 되찾으려 한다. 주권자임을 생생히 경험하고 이 경험으로부터 정치의 문법을 새로 쓰려 한다. 때로 이 시도가 더 심한 혼돈으로 나타날지라도 말이다.¹⁷⁾

5-1-2. 꼭 나쁘다

극우를 포함한 우익 포퓰리즘을 특징으로 하는 서유럽 네오포퓰리스트들은 정치 차원에서는 제도보다 정치 및 정당에 대한 혐오증을 부추기며 정치인들과 정당에 공격의 초점을 두었다. (...) 기성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네오포퓰리스트들의 공격은 이질적 문화와 이민 집단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감정을 분출할 수 있게 해주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받는 이들에게는 성토와 항변의 마당을 제공하는 한편, 시대적 변화의 추세에서 소외되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네오포퓰리스트들은 이들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감성적 선동을 행한다.

네오포퓰리스트들의 주장이 갖는 주요 특징의 하나는 개혁을 주장하지만 그 개혁의 내용은 미래 사회의 이상이 아니라 과거의 한 때를 정치적 고향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네오포퓰리스트들은 과거 권위주의 질서에서 개혁의 방향을 찾는다. (...) 또한 좌파 진영이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것과 달리 네오포퓰리스트들은 가부장과 가족 및 전통사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 이들은 기존의 법과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비판하며 그 원인을 외국인 이주민과 기존의 엘리트주의 정치에서 찾는다. 그에 따라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강력한 국가 규제를 주장한다.

(...) 포퓰리즘이라는 측면에서 포퓰리즘은 대중들의 단기적 이익 추구하고 감성적 동원 및 국수주의적 주장과 증오의 정치를 조장하고 양산한다. 또한 권위주의 질서를 정당화해 남성 가부장 질서를 온존시키고, 거친 다수결주의에 입각해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며, 인물화된 정치를 통해 정치의 예측가능성을 줄이고,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등장시켜 대중과 인민을 다시 수단화한다.¹⁸⁾

17) 장석준, 포퓰리즘은 나쁜 게 아니다, 프레시안, 2016년 12월 28일.

18) 정병기, 서유럽 포퓰리즘의 성격과 특징, 대한정치학회보 20집 2호, 2012년 10월 : 139~164